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2.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3. 우리가 거주하는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4.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5. 한국교회에 파송되는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6. 음악사역자 청빙을 위하여
7. 2019년도 세워진 일꾼들과 재정을 위하여
8. 제 51기 중보기도 사역을 위하여
9.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위하여(7/8-16)
10. 월드체인저스 사역을 위하여(7/22-27)
11.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12.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은혜 장로교회 - 변창희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Peter An ▶ 밀알선교단 ▶ 방송 선교지원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아프리카 우물파기 ▶ 이완구 장학사업 ▶ 사론센터 ▶ 한국선원 선교회 ▶ 소울싱어즈 ▶ 지역교회 살리기/D2BD연합수련회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쿠바(정경석) ▶ 니카라과(헤밀턴) ▶ 도미니카 아이티(문예희/Vilcaive)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잠비아(Emile) ▶ 말레이시아(고인섭)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 의료사역 Healing 153
▶ 미주 남침례회 SBC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서북미 한인침례회 협의회 ▶ 한인국내선교부 ▶ 한인해외선교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국제 코스타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담임 목사	최성은	원로 목사	문창선
수석 부목사(필라델피아/안디옥)	민철기/253-444-8853	은퇴 안수집사	이세진 정영길 좌저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영어부 목사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행정/여와나 목사(예베소/빌립보)	남궁곤/253-753-8310	시무 안수집사	유성렬 함명호 오금철 마이클 갠빈 리차드 데드리지 대니 윌리암슨
기도원 관리목사	안광일/253-335-9101		
유스&영어청년 목사	안재훈/253-365-1105		
한어권 공동체 목사(예루살렘/베들레헨)	전우일/253-904-5158	서무	남궁영숙 주영컬쿠우드
미디어/선교 목사	정주영/253-268-9268		
어린이 사역 전도사	김진현/253-820-3093	관리	명숙앤리 토루마즈다
마더와이즈/유년부 사역지원	최수진/615-516-0389	반주자	조혜경 유상신 주사랑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헨)	봉숙옥/253-359-7869	1,3부 지휘자	김수현
한어청년부 전도사	권민정/253-503-9796	2부 지휘자	Diedrick, Chris
협동목사	장영준/425-444-1669	찬양 인도	채병관 이정빈
사랑부(간사)	이종열/253-228-7734	통역	김경곤 이한희
		음향	한종세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 정 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 광 일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 535-2240 www.tfbc.org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렘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주일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장년부	1부 한어예배	AM 07:55	장년(한어)	AM 09:30
장년부	2부 영어예배	AM 09:20	Korean Adult	
장년부	3부 한어(통역)	AM 11:00	장년(영어)	AM 11:00
한어청년	KCM	AM 11:00	영어청년 YAM	PM 01:00
영어청년	YAM	AM 11:00	한어청년 KCM	PM 01:30
학생부	Youth	AM 11:00	학생부 Youth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09:20/11:00
사랑부(장애부)	Agape Class	AM 11:00	영아부 Nursery	AM 08:00/09:20/11:00
수요예배 Wednesday Service			금요일 Friday	
장년한어	Korean Adult	PM 07:00	한국학교 KLS	PM 06:00
영어	English Adult	PM 07:00	학생부 Youth	PM 07:00
유년부	AWANA	PM 06:45	영어청년부 YAM	PM 07:30
유치부	AWANA	PM 07:00	한어청년부 KCM	PM 07:00
토요일 Saturday			새벽기도 Early Bird Prayer	
한어청지기모임		AM 07:30	한어/영어 KM/EM	AM 06:00

주일에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3부 예배 오전 11:00

1부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인도: 민철기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부 / TFBC 찬양팀

* 교독문 1부 / 41번 이사야 65장
3부 / 41번 이사야 65장

기도 1부 / 정자열프 집사
3부 / 함명호 안수집사

봉헌 1부 / 442장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 41장(1절)
3부 / 442장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 거룩한 곳

성도의교제 3부 / “야곱의 축복”

공동체소식

성가대찬양 1부/ “면류관 벗어서”
3부/ “면류관 벗어서”

* 성경본문 사도행전 20:17-35

말씀선포 2019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When God Builds a Church)
7. “아! 예배소 교회여”

* 응답찬송 1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3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2019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6. “안디옥 교회처럼”

□ 본문: 사도행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완벽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본질도 완벽하지만,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교회도 자라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숙하게 자라나 초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당시 로마의 점령지였던 시리아의 수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여주듯 다섯 명의 리더는 각기 다른 배경(인종, 출신, 경제적 차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동질성에 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곳일지라도 다문화 사역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비전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내부에는 세대, 인종, 빈부, 문화의 극심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 모든 다양성의 차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배드리는 공동체: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안디옥 교회는 뛰어난 목회자들이 성경 교사로 포진해 늘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은 예배를 즐겨 드렸으며, 교회가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행 13:2-3). 긴급한 상황에는 밤도 굶어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무릎 꿇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는 엄청난 도전이자 큰 손해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늘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며, 들은 말씀에 기도와 금식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하나님의 소모품이고 싶다’라는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고,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돕고, 달란트와 시간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 증거와 지역 사회를 위해 사회에 계속 파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만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세우고 보내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이외에도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도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 경쟁하는 문화가 만연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 교회에서 만큼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울을 데려다 리더로 키우고 가르친 바나바의 조력과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금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교회를 통해 남은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도구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공동체, 세우고 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

- 1.교회 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우리 교회(마을)가 타코마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신 말씀에 비추어 나누어 보세요.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꿈의 축재인 여름 성경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 다. 이번에는 같은 날짜에 여러개 교회에서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신기한 현상은 지난 9년 동안 어느 때 보 다도 Non Korean 이 많이 참석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른 일반적인 한인 교회 보다는 그래도 diversity가 있는 우리 TFBC로 왔다는 이야기 입 니다.

지난주 2주 동안은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의 교회의 방향이 나 이민교회의 미래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형제 교회 권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 다. 저희 교회 보다 한인 구성율이 훨씬 높은 교회인데 인터뷰 내용은 제가 이야기 한 것보다 더 과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목양 편지를 대신 합니다. 아래는 권준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입니다.

질문: 이민사회에서 모범적인 목회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민사회 목회의 흐름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0-90년대 이민의 문이 열리고,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한인들이 미주 사회에 유입되었습 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한국도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한인들의 유입이 감소하고 정체기에 들어갔습니 다. 조기 유학의 경우 도 한국에 대한학교와 외국인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 다.

이민교회가 전반적으로 숫자적인 성장이 어렵고, 이제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습니 다. 돌파구라고 하면 자녀 세대인데, 그래서 영어권 2세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한인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 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다음은 어떤 단계일까? 이런 위기 상황속에서도 사그러지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고민이 치열합니다.

대체로 결국 한인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다민족 교회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민교회의 80%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 다. 나머지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20%의 교회가 다음을 내다보고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민교회에 곧바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예전에는 불미스런 사건이 터져도 이민사회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 다만, 이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거의 실시간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잘 돼야, 조국이 잘 돼야 이민교회와 이민 사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 합니다."

질문: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이민목회의 의미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흩어진 또는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뿌려진 씨앗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른 이방의 땅에 뿌리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닌 다른 땅, 다른 자리에 뿌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창 12:1-3). 우리는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킹덤 드림(Kingdom Dream)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죠. 결국 1세대의 어려움과 시련을 넘어, 2세대가 성장하여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자로 키우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소망이자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권준 목사 (기독일보 인터뷰)중에서]

이번 여름 성경 학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춤추고 율동하며 어울리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특히 미국 한복판에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 합니다.

주안에서 최성은 목사 드림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시

인도: 전우일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도 정수데호스 집사
제목 "너희 손을 견고히 할 지이다"
성경본문 스가랴 8:9
말씀선포 전우일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도 Prayer	1부	정자열프 집사	1부	영분엘리엇 집사
	3부	함명호 안수집사	3부	김선 집사
	수요	정수데호스 집사	수요	듀멜완 집사
보육 Child Care	영아	김영숙, 김유진	영아	권인숙, 정애랜드
	유치	김영옥, 권정숙	유치	봉점랭, 이창희
주차장 Parking	권태운, 권경수, 이광우, 임성남, EM (2,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정순애, 박순덕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핏서, 김정숙			
	헌금: (1부) 정종화, 정순애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이호영, 이다니엘			
주일오찬 봉사	6/30	빌립보 공동체 장경희 마을, 필라델피아 공동체 한중세 마을		
	7/ 7	필라델피아 공동체 이정빈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정자열프 마을		
	7/14	필라델피아 공동체 이한되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박수정 마을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7월		2019년 8월	
7(주일)	맥주감사 주일	4(주일)	고별설교 및 파송예배
8(월)-16(화)	도미니카/아이티 난민 여름 단기선교	5(월)-16(금)	여름 한국학교
14(주일)	전도회 월례회	11(주일)	전교인 체육대회
26(금)	시니어 공동체 모임	18(주일)	전도회 월례회
22(월)-27(토)	월드체인저스(국내선교)	19(월)-22(목)	유스,청년 수련회
27(토)	EM 피크닉	22(금)	시니어 공동체 모임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 VIP 10주 과정(년 4회 개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수마을 공동체 모임: 7월 예수마을 공동체 모임은 7/6(토), 7/20(토) 오후부터 마을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청지기/돌봄지기 모임: 7/6(토), 7/20(토) 오전 7:30. 베들레헴

※ 전교인 40일 연쇄 금식 기도: 5/27(월)-7/5(금)
전교인 40일 연쇄 금식기도 중에 있습니다. '최성은 담임목사님 한국 교회 파송 및 제4대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은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3주년 기념 및 VBS 티셔츠 판매: 1장 \$8, 2장 \$10
7/7(주일)부터 티셔츠를 배부합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미리 신청해 주시거나 청지기를 통해 마을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입문의: 권민정, 봉숙옥)

1.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중보기도를 비롯하여 여러 모양으로 귀하게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VBS 봉사자 위로 만찬: 6/30(오늘) 오후 4:30. 영분엘리트 집사택
주소: 2406 120th St. E. Tacoma, WA 98445. (Tel: 253-222-3666)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00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시 어와나 방학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Summer Bible Movies & Popcorn Night(7/3) 과 Mr. Diedrick Music School(7/10-8/28)을 진행합니다.

3. 7/7(주일)은 매추감사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해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감사의 예배와 함께 나누어드린 봉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여름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미니카/아이티 해외선교(7/8-16)
* 월드체인저스 국내선교: 7/22(월)-27(토) 장소:Salem, OR.
※ 여름선교팀 학부모 모임(도미니카/아이티, 월드체인저스): 7/7(주일) 3부 예배후. 안디옥 성전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어권 피크닉: 7/27(토) 오전 11시. 교회

6. 여름한국학교: 8/5(월)-16(금). 오전 9:30-12:30.
대상: 4세-어른. 선착순 100명. 등록마감: 7/28(주일). 문의: 영숙고령 집사
등록금: 1st Child(60불), 2nd Child(50불), 3rd Child(40불). 7/28(주일) 이후 등록(\$70)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사무실 휴무: 7/4(목) 독립기념일로 인하여 사무실 휴무합니다.

◇ 타코마 제1 침례 교회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 인터콥 선교와 신사도 운동과 교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적 선교와 성령 운동을 통해 교계와 교회들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케어에서 오전에 성실히 묵으로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문의: 박정희 집사)

◇ 사역자 청빙: 음악 사역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예배 후, 교회에 남아 섬기시는 분들은 서편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차량 도난 예방 차원이오니 차량 안에 물건(가방, 운동기구, 핸드폰등)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삶 6/30(주일) 주간 ※ 새벽설교는 홈페이지(www.tfbc.org)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7/1(월)	예레미야 23:1-8	안재훈목사	7/2(화)	예레미야 23:9-22	남궁곤목사
7/3(수)	예레미야 23:23-32	김진현목사	7/4(목)	예레미야 23:33-40	정주영목사
7/5(금)	예레미야 24:1-10	남궁곤목사	7/6(토)	예레미야 25:1-14	민철기목사

◆ 교우동정(Compassion) ◆

◇ 담임목사 동정

* 7월: 휴가 및 심방 * 8/4(주일) 고별설교 및 파송예배

◇ 소천: 양안자(행자화이트포드, 양행심 모친) 6/26(수) 소천. 천국환송예배가 6/28(금)에 있었습니다.

◇ 중보: Rick Dollar, Walter Kelley, Donald Garner, Terry Burtts, Deniel Woo, 이경란, 박화숙, 양례깁스, 엄기추, 애디 섀홀즈, 문성주

◇ 파병 및 훈련: Tevin Maggart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